

조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여성정책 공약

기혼여성 위한 보육정책 강력 추진 기대돼

서울여성프라자 서울시 직속 운영 지켜볼만



조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포청천, 산신령 등 청렴한 관리를 상징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부족해, 30대 후반의 젊은 참모진과 대학총학생회장 출신을 중심으로 VJ(빅토리 조순)팀을 운영 '젊은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조순 씨(67-민주)가 서울시의 민선 시장이 됐다. 조순 당선자는 지난 6월 27일 선거결과(6월 28일 정오 현재) 전체 유권자 7백43만8천25명 중 69.7%인 3백37만9천2백60명이 투표, 이중 42% 이상의 높은 지지율 받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여성계는 조순 씨가 당선 이후 여성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충, 여성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성화 등을 정해 놓았다(표 참조).

조순 당선자는 본지가 실시한 15개 단체장 후보 대상 설문조사(본지 330호, 6월 23일자)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여성정책에 관한한 실현가능한 내실있는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여러차례

로 꼽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뒷받침되어야 할 제도로 ▲다양한 부서 배치, 보직 순환제 등을 통한 인사제도의 내실화를 이루어 여성중견인력 육성, ▲탁아 급식, 아동보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 내실화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하도록 뒷받침 ▲여성들의 시정, 구정, 의견감시단 활동을 지원, 여성의 정치의식제고, 각종 직책(임명

서울여성프라자, 가정복지국과 상호보완관계

조 당선자는 또 서울시장 산하에 여성정책자문기구인 '서울여성프라자'를 설치해 다양한 계층의 여성전문가들로부터 여성정책의 자문과 정책 대안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서울시의 행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기능과 여성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여성이 시의 여성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정복지국은 그 기능상 집행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여성프라자의 기능과는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상 여

성프라자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여성프라자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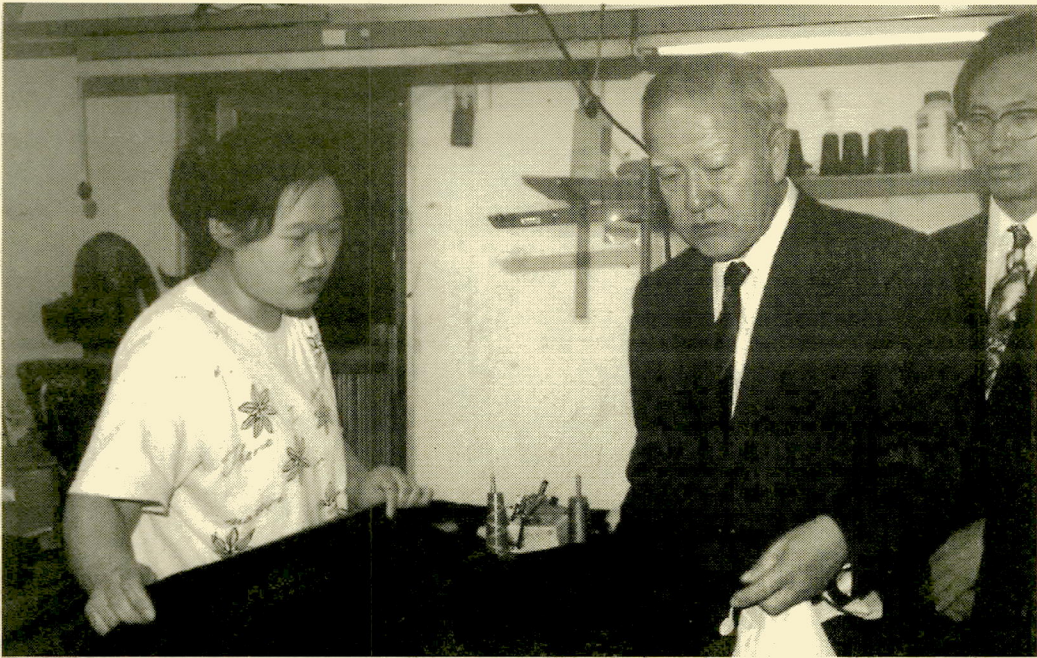
한편 조 당선자는 "한국은행 총재 재직시 당시 공채에서 홍일점으로 당선된 여직원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낸 적이 있으며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써 왔습니다."며 자신이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임을 강조하

기도 했다. 조 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부인 김남희 여사(64)와의 사이에 큰아들 조기승(47, 엘지전자 상무) 씨와 첫째며느리 허태경 씨(42), 둘째아들 조준 씨(42, 소아과 의사)와 둘째며느리 현용숙 씨(35), 세째아들 조건 씨(39, 사업)와 며느리 양연향 씨(36), 막내 아들 조승주 씨(31, 포항공대 박사과정)를 두었다.

(황금희 기자)
(사진·민원기 기자)

조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여성정책 공약

여성정책	구체적인 운영 방안
서울시장 산하에 '서울여성프라자' 설치	· 각구별, 직능별, 계층별 여성대표로 구성-분기별 전체회의및 상근부서를 통한 정책화 작업. · 여성정책 조정및 심의. · 여성정책, 여성관련 시설운영에 관한 여성성참여 제도화. · 정보 수집및 제공. · 각 구간 여성관련정보와 프로그램의 교류.
학교급식 전면실시및 급식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 97년까지 국민학교 전면급식 실시완료 · 급식 위원회 운명으로 급식의 질, 위생 등에 대한 심의및 감시 기능 부여. ·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고, 서울시및 구의 지원폭 확대, 교육특별회계와 지방교육 양여금으로 충당. · 학교의 신,개축시 급식시설 설치의무화 · 빈교실이 있는 학교는 이를 급식시설로 활용 ·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무료급식.
탁아소 확대 및 지원강화	·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원강화 . · 보육위원회 지원 등에 대한 심의·감시 · 영아탁아,야간 탁아 등 다양한 탁아프로그램 개발. · 시립,구립탁아소 전면적 확충 및 민간탁아소에 대한 세제, 행정지원 시행. . · 가구당 소득비 1백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 · 저소득층 지역탁아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지원.
방과후 아동보호,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	· 국민학교,사회복지관,지역사회시설을 개방 활용하여 방과후 아동 보호시설로 활용. · 음악,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 자원봉사제도를 실시, 주부 등 시민의 참여보장및 폭넓은 교육의 질을 확보.
모범적인 여성인력운영 취업,임금,승진에서 동등한 관리보장	· 채용시 남성 군경력을 호봉에서만 인정, 임용 과정에서 평등을 실현. ·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일한 순환보직제, 다양한 부서근무 보장, 연수 기회 확대로 승진에 있어서 차별철폐. · 여성 과장,국장 등 중견간부 양성. ·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산전,산후 휴가 3개월 시행(개정안), 육아휴직 1년 이용 활성화.
주부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 직업훈련원의 주부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및 교육대상 제한 폐지. · 구민회관,사회복지회관 내 주부재취업 프로그램(컴퓨터,봉제,미용 등) 활성화 및 취업 알선센터와 연계.
건강한 모자보건 환경조성	· 보건소,사회복지회관 내 여성과 아동보건센터 운영, 무료검진폭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및 지원.
다양한 문화,교양 프로그램 개발	· 구,동단위로 다양한 문화, 교양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교육 전문요원 배치, 운영. · 시향,시극단 등의 다양한 주부대상 문화 행사 실시. · 주택가 주변에 다양한 '작은문화공간' 확보하여 주부들의 문화욕구 흡수.



조순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저소득 근로여성들의 작업 현장을 찾아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난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여성정책은 크게 두가지 기본방향을 골격으로 잡고 있다. 첫번째는 21세기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두번째는 부녀복지사업 주축의 여성정책을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여성사회참여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시행,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교육시설을 대폭 확

레 한 바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조순 후보는 ▲고용,임금, 승진의 남녀 동등한 권리보장 ▲탁아, 급식,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확충 및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문화로부터 여성보호책 마련 ▲가족법 등 각종 법률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 폐지 ▲정치분야의 할당제 도입 등 여성정치 참여 활성화 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

'서울여성프라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조 후보는 지난 6월 22일 하이텔과 한세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서울시장후보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밝힌 바 있다.

조 당선자는 그자리에서 '서울여성프라자'의 성격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현행 여성정책기구인 가정복지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울여성프라자는 정부의 청무제2장관실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